

전주시, '착한 소독운동' 실시

1400여명 참여해 집단감염 우려시설 등 일제 소독·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집중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콜센터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독운동을 중점 추진했다.

또 다음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됨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제한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시는 25일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네 번째 전 시민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 단체, 소상공인, 공동체,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착한 소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시는 관계기관과 단체, 시민 등 1,400여 명이 참여해 콜센터 15개소를 비롯한 소규모 집단감염 우려시설 등 127개 구간의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콜센터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수화기, 문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와 물건을 대상으로 1일당 최소 2회 이상 시설의 소독과 환기를 진행 후 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손세정제 비치상태와 마스크 착용 상태 등 예방수칙도 점검했다.

또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439개소와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 2953개소를 포함한 439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제한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운영 시에는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행정지도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한옥마을과 삼정가, 전통시장, 대형마트,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청소년문화의집 등도 소독을 진행했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소독약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소독장비도 임대해 주민들의 공간이 자체적으로 소독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 문화를 발현해 위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며 "시민의 힘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콜센터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독운동을 중점 추진했다.

고품질 딸기생산 돕기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딸기 병해충 전문가와 5개 농가 방문해 현장상담 진행

전주시가 딸기의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장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는 25일 지역의 딸기 병해충 전문가인 전북농업기술원 박정호 지도사와 함께 고품질 딸기생산을 돕기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겨울철 온도상승 등 이상기후로 딸기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40% 줄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

중됨에 따라 딸기 생산성 향상을 도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이날 용정동 주 모씨 농가 등 5개 농가를 방문해 최근 많이 발생 중인 응애 등 병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법과 정식(옮겨심기) 시 토양·상토 소독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또 온도 및 수분관리, 화방관리 등 현장정밀진단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왔다.

시는 이와 함께 농가현장의 애로사

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기도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컨설팅은 재배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현장을 방문해 진행할 것"이라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방역물품 지원

100여개 조직 대상 마스크 등 담은 '코로나19 극복 꾸러미' 제공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5일부터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100여 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꾸러미'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한팀은 지난 23일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해 500개의 면 마스크를 제작해 전주시에 기부했다.

코로나19 극복 꾸러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별도의 전달식 없이 개별적으로 해당 기업에 방문해 배부할 예정이다. 꾸러미에는 마스크와 소독분무기, 경영 지원대책 안내문, 소독유형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엔 사회적경제 조직에 배부하는 마스크는 전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하) 자활사업단 '한땀'이 직접 제작했다. 한땀은 지난 23일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해 500개의 면 마스크를 제작해 전주시에 기부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 속에서 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기부

해준 '한땀'에 감사드린다"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시범운영 공모 선정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선정... 4개 돌봄공동체와 네트워크 구축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친화도시 전주시가 맞벌이 부모 등 돌봄공백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는 돌봄공동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돌봄공동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받는 어린이집과 학교 방과후 교실 등 공적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시범운영 공모에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선정됐다.

시는 여성가족부의 '2020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시범운영 공모에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선정돼 올해 53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기존의 나뉘드림, 사랑방, 호크마, 돌봄돌봄 통통 등 4개 돌봄공동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돌봄활동가 역량 강화와 컨설팅, 돌봄공동체 모임 지원, 새로운 돌봄 구성원 모집·교육 등 돌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트론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돌봄공동체인 나뉘드림의 경우 송천동 일대의 8~10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활동에 나서며, 사랑방은 서곡 일

대의 8~10세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호크마는 중화산동 일대에서 7~11세 아동들을 돌보고, 돌봄돌봄 통통의 경우 서신동 일대의 5~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돌봄공동체는 아동들에게 학습과 놀이, 체험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주말동네여행과 마을학교 탐험단, 경로당 어르신과 함께하는 놀이활동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마을공동체 회

복은 물론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서비스는 지역공동체에 가입된 부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063-231-018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향후 돌봄 활동가 60명을 발굴하고 100여 명의 아동들의 돌봄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